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논술시험(인문 1)

< 2015. 11. 14(토) 08:40 인문계 1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전형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 1)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인과 사회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

<제시문 1>

인간은 개인의 자력만으로는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할 수도 없다.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장군에게 좋은 삶과 중세 수녀 혹은 17세기 농부에게 좋은 삶은 동일하지 않다. 나는 다양한 개인들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 산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 혹은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동업 조합 또는 저 직업 집단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씨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의 담지자로서 나는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들을 물려받는다. 그것들은 삶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하며 나의 삶에 그 나름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제시문 2>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결합하여 공동 사회를 조직하는 목적은 각각 자기네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그 공동 사회에 속하지 않는 자의 침해에 대해 보다 공고한 안전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로 그와 같이 합의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조금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의 자유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사회나 정부를 형성할 것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곧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 체제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3>

개인의 자아 정체성조차도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인간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도덕적 유대에 의해 결합한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는 공동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자아는 공동체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부여하는 삶의 목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집단의 조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로서 지니는 특징을 고려하면,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서구식 담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집단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풍조 역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제시문 4>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를 보면,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진딧물은 개미에게 단물을 제공합니다. 진딧물만이 개미의 가축은 아닙니다. 개미는 꽤 여러 종류의 가축을 기릅니다. 개미가 이들을 기르는 방법도 사람과 유사합니다. 목동이 양떼를 몰고 나가듯이 아침이 되면 개미들은 기르는 곤충들을 몰고 올라가서 좋은 잎에다 풀어놓고 보호하다가 저녁때가 되면 다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반해 우리에게는 공존의 지혜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우리는 개미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들이 진화의 역사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공존의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만 독불장군처럼 영원히 살 수는 없지요. 남을 배려해야만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제시문 5>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고유한 삶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고유한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선택에는 자율성이 전제되어 있다. 자율성이란,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그에 따른 선택권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며 윤리적 존재인 인간 본연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논술시험 (인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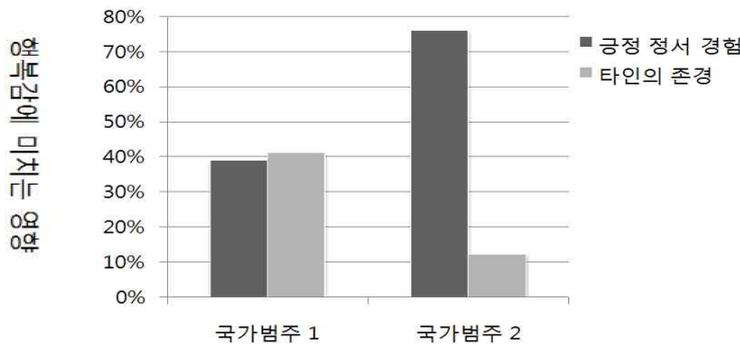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는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특징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두 가지 연구 결과이다.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시오.(25점)

<자료 1>

국가	목표 우선성	행복감
중국	2.00	16.43
인도네시아	2.20	21.89
덴마크	7.70	25.00
독일	7.35	23.27
한국	2.40	18.42
일본	4.30	20.20
호주	9.00	23.05
오스트리아	6.75	24.28
노르웨이	6.95	25.24
미국	9.55	23.64

- ※ 1. 목표 우선성: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상충할 때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가의 문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목표를 집단 목표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 해당함(1점~10점)
- 2. 행복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5점~35점)

<자료 2>



- ※ 1. 국가범주 1: 개인 목표보다 집단 목표를 중요시하는 나라들, 국가범주 2: 집단 목표보다 개인 목표를 중요시 하는 나라들
- 2. 긍정 정서 경험: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좋은 기분과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
- 3. 타인의 존경: 일상생활에서 타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정도

[문제 3] <자료 3>은 A와 B 국가에서 1년간 두 가지 의료비 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문제 1]의 제시문에 근거하여 이 자료를 설명하고, [문제 1]의 한 입장을 택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25점)

<자료 3>

국가	정책	의료비 부담 비율 (%)	일인당 평균 병원 방문 횟수	일인당 평균 본인 부담금(단위: 원)	평균 사망률 (%)	사회전체의료비(단위: 조원)
A	가	35	10.1	35,350	3.3	6.1
	나	10	14.1	14,100	3.1	8.4
B	가	34	9.8	33,320	3.4	5.8
	나	11	9.9	10,890	3.2	6.1

- ※ 1. 의료비 부담 비율(%):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문제 4] 일부 대기업들이 개인의 성과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보수를 개인 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pay-for-performance)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제도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 1]에 제시된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성과급 제도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25점)